http://hanzhong.idi.re.kr/

한중 Zine

최신 중국 동향

vol.110 2013.06.03

목 차

1. [경제] 2012년 중국 GDP 질량지수 순위
2. [산업] 국가 해양경제 2030년 성숙기에 진입
3. [사회] 2013년 도시경쟁력 : 홍콩, 선전, 상하이
4. [사회] 중국인이 관심 있는 중대 사회문제 및 사건

작 성 : **김지선 연구원**(jisun13@idi.re.kr)

인천발전연구원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1. 경제 2012년 중국 GDP 질량지수 순위

o '중국경제연구원(中国经济研究院)'은 중국 31개 성시의 단위 GDP 1인 평균 가처분 소득 비율 즉, 'GDP 질량지수(含金量)'를 발표함.

- 2012년, 중국 31개 성시를 GDP 질량지수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광둥(广东), 저장(浙江), 하이난(海南), 쟝시(江西), 윈난(云南), 안훼이(安徽), 충칭(重庆), 구이저우(贵州), 헤이롱장(黑龙江), 푸젠(福建), 광시(广西), 닝샤(宁夏), 산시(山西), 후난(湖南), 쓰촨(四川), 후베이(湖北), 장수(江苏), 간쑤(甘肃), 랴오닝(辽宁),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허난(河南), 지린(吉林), 산둥(山东), 산시(陕西), 칭하이(青海), 신장(新疆), 네이멍구(内蒙古), 티베트(西藏) 순으로 나타남.

- 2012년 GDP 질량지수 상위 3위인 상하이, 베이징, 광둥은 2011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음.

o GDP 총액으로 살펴본, 상위 5위권 도시는 광둥 1위, 장수 2위, 산둥 3위, 저장 4위, 허난 5위로 나타났으나, GDP 질량지수 순위로는 광둥 3위, 장수 19위, 산동 26위, 저장 4위, 허난 24위로, GDP 총액 순위와 GDP 질량지수 순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 저장은 GDP 총액과 GDP 질량지수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각각 4위에 랭크되었으며, 광둥은 연속 2년 각각 1위와 3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둠.

- 또한 하이난과 윈난의 GDP 총액 순위는 31개 성시중 비록 하위권에 있으나 GDP 질량지수는 각각 5위와 7위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음.

o 국가 통계국이 발표한 2012년 중국 GDP 총액은 519,322억 위안으로 전년도 대비 7.8% 증가함.

- 중국은 GDP 성장률 7.8%로 13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세계에서 여전히 선도적인 수준임.

【출처: 2012年31省份GDP含金量大排名, 人民网-中国经济周刊, 2013-3-05】

2. 산업 국가 해양경제 2030년 성숙기에 진입

o 국가해양국(国家海洋局) 해양발전전략연구소(海洋发展战略研究所)가 발표한 '2013년 중국해양경제발전보고(中国海洋经济发展报告(2013))'에 따르면, 중국 해양경제는 2030년까지 성장기에 머물다 2030년 이후 성숙기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 2012년 중국 해양경제 총생산액은 5조 위안을 돌파하였으며 해양 총생산액이 같은 기간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9.6%임.

- 현재 중국 해양경제는 빠르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양생산 규모, 해양산업 구조, 해양관련 취업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음.

o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 해양경제는 성장기에 머무르다 조방형(粗放型)에서 집약형(集约型)으로 성장방식이 전환되고, 해양자원이용 효율이 대폭 향상되면서 국민경제에 대한 해양경제 기여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30년 중국 해양경제 총생산액은 20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GDP에 대한 해양총생산액 비중은 15%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됨.

o 향후 10년~20년, 전략적 해양 신흥산업은 해양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 것이며, 해양과학기술은 해양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임.

- 또한 해양 첨단기술산업기지는 해양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 될것임.

【출처: 国家海洋局报告:我国海洋经济2030年后进入成熟期, 新华社 , 2013-05-20】

3. 사회 2013년 중국도시 종합 경제경쟁력: 홍콩, 선전, 상하이

o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재경전략연구원(财经战略研究院), 사회과학문헌출판사(社会科学文献出版社)와 중국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연구센터(中国社会科学院城市与竞争力研究中心)는 공동으로 2013년 도시경쟁력 보고서(2013年城市竞争力蓝皮书)를 발표함.

- 2012년 중국도시 종합 경제경쟁력 순위로 홍콩, 선전(深圳), 상하이(上海)가 상위 3위에 랭크됨.
- 본보고서는 2012년 중국 양안 4대 지역 및 약 300개 도시의 도시 경쟁력 현황과 이상적 도시로의 실현을 위한 지수를 평가함.

o 2012년 도시 종합 경제경쟁력 상위 10위권 도시는 홍콩, 선전, 상하이, 대만 타이베이(台北), 광저우(广州), 베이징, 쑤저우(苏州), 포산(佛山), 톈진과 마카오임.

- 10위권에 진입한 중서부 도시는 없으며, 우한(武汉), 청두(成都)만이 20위권에 진입함.

o 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홍콩 · 마카오 · 타이완지역, 동남연해와 환보하이 지역의 도시 종합 경제경쟁력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게 나타남.

- 또한 동북지역, 중부지역, 서남지역과 서북지역의 도시종합 경쟁력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중부지역 지역내 도시격차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됨.

o 도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순위 역시 홍콩 · 마카오 · 타이완지역, 동남연해와 환보하이 지역의 도시 분포율이 높게 나타남.

- 순위권 도시로 홍콩, 상하이, 선전, 베이징, 광저우, 마카오, 항저우, 칭다오, 우시(无锡), 지난(济南) 순임.

o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가진 도시 순위로 홍콩, 마카오, 우시, 창저우(常州), 주하이(珠海), 쑤저우(苏州), 웨이하이(威海), 하이커우(海口), 전쟝(镇

江), 중산(中山) 등 10개 도시의 주거 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타남.

o 상업에 적합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홍콩,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포산, 쑤저우, 선전, 우한, 칭다오(青岛), 항저우(杭州)순으로 랭크됨.

- 도시의 경제발전 수준과 상업경쟁력은 밀접한 관계를 보임.

o 조화로운 도시 경쟁력 순위는 홍콩, 마카오, 지난, 시안(西安), 선전, 칭다오, 웨이하이, 다롄(大连), 샤먼(厦门)과 닝보(宁波) 순서임.

- 2·3선 도시와 중소도시의 도시 조화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는 10위권에 진입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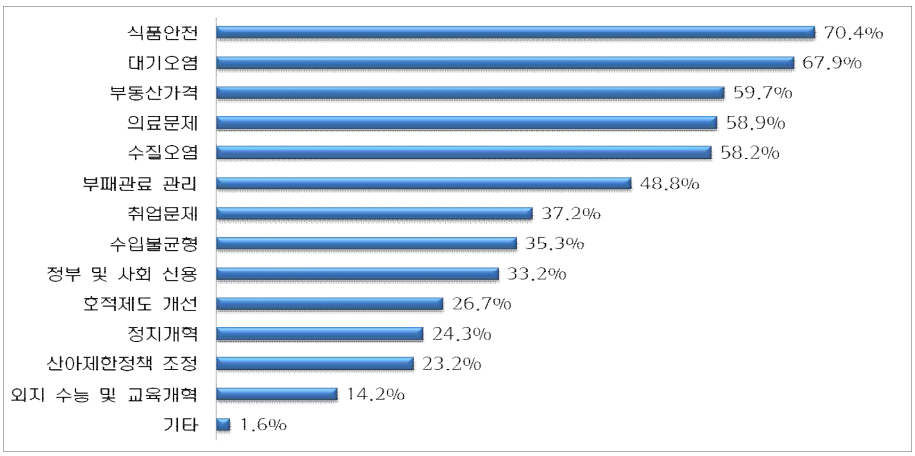
【출처: 2013城市竞争力蓝皮书:港深沪综合竞争力最高, 经济日报, 2013-05-20】

4. 사회 중국인이 관심 있는 중대 사회문제 및 사건

o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중국민정조사연구실(中国舆情调查实验室)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사회문제는 식품 안전(70.4%)과 대기오염(67.9%)인 것으로 조사됨.

- 또한 높은 부동산가격, 의료 및 수질오렴문제가 50%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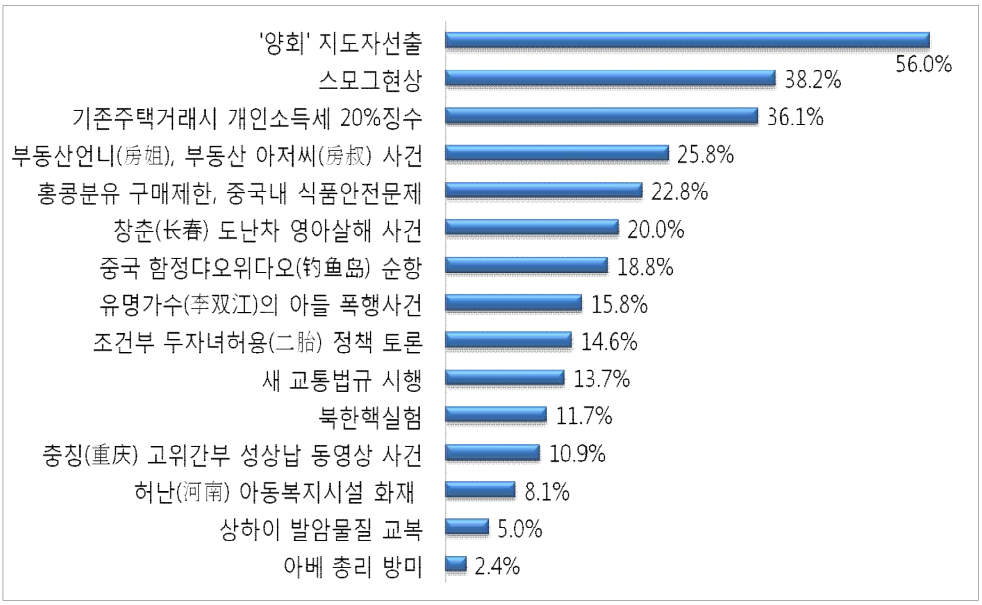
<그림 1> 가장 관심 있는 중대 사회문제



o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15대 중요 사건 중 '양회(两会)-국가 지도자 선출'를 선택한 응답자가 56.0%로 가장 많았음.

- 뒤를 이어,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스모그현상'과 부동산 규제 정책인 '기존 주택 거래시 거래차익의 20%를 개인소득세로 징수'하는 부분이 각각 38.2%와 36.1% 많은 관심을 끔.

<그림 2> 중국 15대 주요 관심사건



o 본 설문은 2013년 3월 22일~4월 3일까지 전국 20개 1·2·3선 도시의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로,

- 응답자중 남성은 51%, 여성은 49%이며, 학력수준은 초등이하 대학원생 이상이며 연령대는 18세~77세임.

- 또한 평균 소득은 2만~20만 위안이상이며 직업군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광산업, 금융, 과학기술,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출처: 社科院舆情报告:七成民众最关注食品安全与雾霾, 央视网, 2013-05-24】